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고찰

이소영*

*충북연구원

e-mail:sylee@cri.re.kr

A Study on the Green New Deal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and Regional Development

SoYoung Lee*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포스 코로나에 대응하고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그린뉴딜 사업을 지역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그린뉴딜 현황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의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지속성 있는 지역형 그린뉴딜의 추진과 지자체의 권한 및 역할을 강조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극심해지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큰 지각변동과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예로, 극심한 경기침체, 방역의 일상화, 비대면 사회의 확대 등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감염병 대응 역량의 강화,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수요 급증이 대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 국내 경제의 혁신적인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을 추진하였다.

2. 충청북도의 그린뉴딜 정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급속한 미래 변화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는 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충청북도는 그린뉴딜을 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등의 위험 요소 증가 문제와 미세먼지, 산단 배출가스 등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자원순환 문제 등을 해결하고, 미래기술 융합 주력산업인 태양광,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발판 마련을 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충청북도는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충북형 뉴딜사업’을 총 4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뉴딜의 경우 전체 뉴딜의 한 축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그린뉴딜 전략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 추진 초기단계 혹은 추진 준비 중인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를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환경문제 및 개선에 관한 관심과 투자 움직임이 많이 늘었으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한 사업 및 투자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2. 지역형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하고 있는 탄소중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에서는 기존 진행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형 그린뉴딜의 세부적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정책수용성 및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유환 외,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2.0 추진계획 방향”, 2021
- [1] 충청북도,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추진계획, 2021